

# 견고 싶은 거리 '건축도시 산책' 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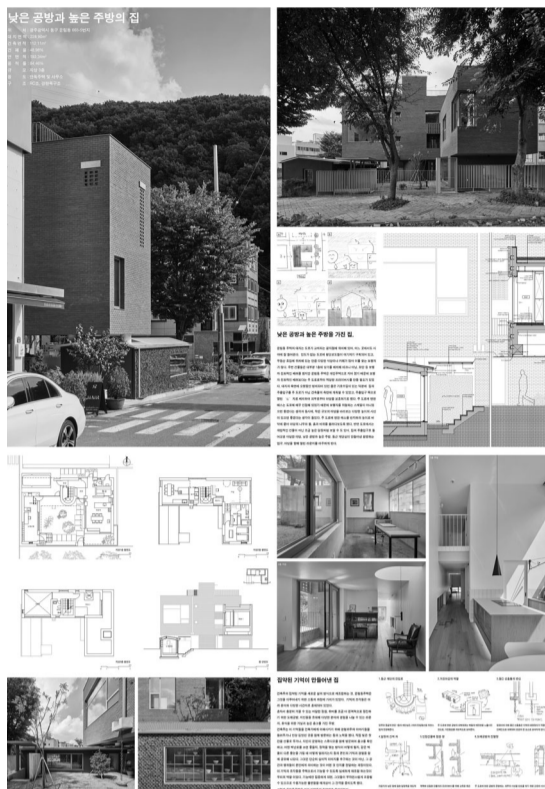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내달 3일부터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올해 건축상 수상작' 등 섹션 다채  
건축포럼·무료 민원상담 동시 진행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견고 싶은 거리-가로경관'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다. 거리를 산책하는 듯한 콘셉트로 기획된 전시로 광주의 예술적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 대표 건축전시인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지난 2019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모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건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전문가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축제 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28회 광주건축상 수상작품전 △광주시건축사회 회원작품전 △2024 자랑스런 광주건축인 △타시·도 건축상 교류전 △우수건축물 탐방 및 우수건축가작품전 △광주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작품전 △광주시 기반 주요건설사(중흥, 우



제28회 광주건축상 수상작품전에서 주거부문 최우수작으로 꼽힌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공

미, 보광, 서진, 제일) 우수 공동주택전 △2024 장애 없는 세상만들기 작품전 △광주전남건축전공과 학

생우수작품전 등의 섹션을 선보인다.  
또 건축도시포럼과 무료 건축민원 상담도 진행한다.

앞서 광주시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는 '2024년 제28회 광주시건축상' 수상작 6개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건축상 최우수작에는 △비주거 부문 '보이저 진월' △주거부문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이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공공부문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비주거부문 '카페 루브시' △주거부문 '일곡 하얀 집'과 '장덕동 1231'이 각각 뽑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지회는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18일까지 '제28회 광주광역시건축상'을 공모했으며, 총 1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건축사, 대학교수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심사위원회가 1차 판넬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총 6개 작품을 확정했다.

비주거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된 남구 진월동 '보이저 진월'은 푸른길과 인접한 대지의 특성을 활용하고 도로 유동을 통한 접근성을 고려한 열린 배치와 건물 내부공간에 있는 상업시설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 상호 작용한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주거부문 최우수작으로 뽑힌 동구 운림동 '낮은

공방과 높은 주방의 집'은 대지가 협소하지만 짧은 건축가의 도전과 고민이 작품에 녹아들어 다양한 높이의 시선을 제공하는 설계기법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공공부문 우수작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주민들에게도 친근한 공간감을 창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에는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천 교수는 △하바드대학 미술학과 객원학자 △교토대학 대학원 건축학전공 객원학자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의 건축문화제-전남편 △전남의 석탑 등의 저서를 저술해 후학양성과 학계에 공로를 세웠다는 평을 받는다.

유창군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은 "광주시는 최근 미학적 도시경관으로 '걷기 편한 도시', '15분 이내 이동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산책'을 콘셉트로 전시를 기획한 이유다"며 "광주 지역 건축인들과 건축을 사랑하는 광주시민, 건축문화가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인 전시의 장인만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의 건축도시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석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된 작품은 온라인(<https://gjfika.org>)에서도 상시 만나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청년기획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공론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제공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 '새로운 울림' 개최

내달 8일 ACC 문화정보원 극장3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협력 개최  
주제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기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전시와 연계된 담론의 장(場)인 심포지엄이 9월 8일 개최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개막에 맞춰 세계적인 연사들과 함께 전시의 심층 이해와 다학제적 논의가 이뤄지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은 '새로운 울림: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기술(Echoes of Tomorrow: Soundscapes in the Age of Advanced Comput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하는 이번 학술행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의 LG전자 어소시에이



트 크리에이터 노암 시겔(Noam Segal)이 공동 기획했다. 공동 기획자 노암 시겔은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Visual Arts)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구겐하임 미술관의 기술 기반 예술 기획

을 맡고 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심포지엄은 본 전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리와 동시대 첨단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소리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 패널 토론, 라이브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양자 현실 등이 소리에 미친 영향 및 광범위한 소리의 재현 가능성을 돌아본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해하는 매체로서 소리의 풍부함을 풀어내면서, 기술이 다양한 소리의 풍경화(soundscape)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고 제한했는지 조명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9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진행되며 한-영 동시통역 된다. 참가 신청은 구글 설문(<https://vo.la/AziSp>)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도선인 기자

##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광주 오월정신은?

5·18행사의 청년사업 '오픈공론장'  
24일 10년후그라운드... 1·2부 진행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광주 오월정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 만들기 프로젝트 '에브리씽, 메이, 올앳원스(Everything, May, All At Once)'의 대미를 장식할 '오픈공론장'이 오는 24일 남구 양림동에 있는 10년후그라운드에서 열린다.

본 사업은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청년기획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오월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웹진에 기록하는 활동을 했다.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취지인 이번 행사는 명사 초청 특강인 1부와 오픈공론장이 진행되는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예능PD이자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권성민PD가 '내가 모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권성민PD는 카카오톡 '톡이나 할까?', 웨이브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

티'를 연출했으며, 최근 청룡시리즈어워드에서 최우수예능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MZ세대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권PD는 '대화'의 가능성과 따뜻함을 강조하며 공론장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본다.

2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2주에 1번씩 진행된 6번의 오프라인 소규모 공론장인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의 논의들을 정리해서 공유한다. 또 비경험세대로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청년 패널들이 함께하는 현장 토크와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선착순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https://forms.gle/5xnKauDphRUGUBjs6>)에서 가능하다.

박미경 제44주년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5·18민중항쟁 경험세대와 비경험세대 간의 사고의 문턱을 낮추고 오월 정신이 여전히 유효한 시대정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의 성과가 이후에도 기념행사의 핵심과제인 '미래세대로의 전승'에 부합하는 다양한 청년 분야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 ACC재단, 이안 보스트리지 '겨울 나그네' 공연

10월 23일 ACC 극장2  
슈베르트 연가곡의 정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 ACC 슈퍼클래식' 두 번째 작품으로 이안 보스트리지와 랄프 고토니의 '겨울 나그네'를 오는 10월 23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가 1827년 빌헬름 뮐러의 연작시에 곡을 붙여 작곡한 24곡의 가곡집으로, 실연한 남자의 정처 없는 여정을 담은 연가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안 보스트리지(사진)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역사를 가

르치는 역사학자에서 성악가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현재 뉴욕 카네기홀과 런던 바비칸센터 상주음악가로 활동 중인 그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음반으로 그라모폰 베스트 솔로 보컬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최고의 '슈베르트 테너'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의 저서 '겨울 나그네'로 폴 로제르프 쿠퍼 상을 수상할 만큼 깊고 넓은 예술세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오스트리아 문화부의 슈베르트 메달을 받은 '랄프 고토니'가 피아노 연주로 참여해 이안 보스트리지와 함께



슈베르트 연가곡의 정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이번 공연은 아름답고 인상적인 선율의 슈베르트 연가곡을 감미로운 미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 나그네' 공연은 10월 23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http://www.accf.or.kr))을 통해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